

민주당 vs 한국당, 청문회 '한판 승부'

오늘 조국 청문회 11명 증인채택 합의

딸·펀드·웅동학원 의혹 놓고 공방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한판 승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11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한국당이 합의한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면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

이날 열리는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조 후보자 딸의 진학 등과 관련된 의혹,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과 관련된 채무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의 경우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인턴 과정을 통해 SCI급 논문에 제1 저자로 등록된 의혹,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과정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동양대 총장상의 허위 수여 의혹 등이 될 전망이다.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편법 증여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조 후보자가 펀드 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지난 1985년 인수한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낸 당시 학원 소유 땅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는 의혹,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 '셀프 소송'으로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핵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문회 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방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사퇴 선고'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의 본질에 맞게 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로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청문회는 위법·위선·위험

을 총정리해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주는 '사퇴 선고' 청문회로 역사적 심판이 내려질 국민 법정"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청문회 본질에 맞게 후보자의 자질, 정책, 능력검증을 집중하는 정책 청문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협력해달라"고 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리더십 시험대 오른 '위기의 나경원'...청문회에 달려

조국 청문회 개최 합의 두고 당 안팎서 비판 목소리 터져 나와

장제원 등 반발과 입장 선회...청문회 결과 보고 책임론 결론 날듯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하기로 합의하자 당내에서는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이틀 청문회'가 무산된 것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 가족 등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된 '맹텅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다.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과 관련해 검찰의 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야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문제인 대통령에게 임명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당 안팎에서 나 원내대표가

사전에 당 소속 의원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이에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홍준표 전 대표는 5일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두고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을 기회였는데 무지, 무기력, 무능으로 놓쳤다"며 "차라리 청문회 없이 '국민 무시 임명 강행'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사게 했다면, 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계속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백기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했다.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 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 있느냐"라며 "이미 물 건너 간 청문회를 해서 그들의 죄에 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미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상황인 만큼 한국당은 일단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만은 잠시 내려두고 조 후보자의 공세에 집중할 전망이다.

장 의원은 전날 반발을 의식한 듯 5일 페이스북에 "당의 명령에 따라 청문회에 임한다"며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조 후보자에게 직접 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교안 대표가 나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일단 당내 비판론은 인사청문회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내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불법 행위를 국민에게 알려 드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인도 거부하고 일정도 (미루자고) 우기면서 시상 초유의 비정상적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조국 사퇴 선고 청문회'로 규정하는 등 총력전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는 그간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 도덕성·위법성·전문성 등 자질 검증은 끝났다"며 "내일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위법과 위선, 위험을 총정리해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준 사퇴 청문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6일 개최되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가 원내지도부에 대한 당내 분분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신환 '불참' 채이배 '참석'

바른미래, 조국청문회로 또 내홍?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

는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 의원은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판단했다"며 "당이 개별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불참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도 이날 오전 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와 관련해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재송부를 요청

"임명 강행 명분 세워주는 일" vs "들어가서 싸우겠다"

민주·한국 양비론 한목소리 "참석 여부 의미 없어"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소집을 위해선 최소 5일 전에는 출석을 요구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이 자체가 합법적으로 어렵게 되도록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는 지적이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한국당을 통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임명강행에 한국당이 명분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민주주의이고 반헌법적인 합의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뒷북 청문회와 상관없이 조국 일기의 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권파인 채이배 의원은 청문회 참석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대 양당의 이권 다툼에 밀려 '뒷북 청문회'로 열렸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겸종에

청문회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채 의원은 오 원내대표와 정부·여당, 한국당에 양비론을 펴는 것에는 같은 입장을 취했다.

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빙의한 논리로 서로 억지를 부리며 증인채택 협상을 결렬시키려 하고 있다. 이제 제발 솔직해져야 한다"며 "서로 청문회를 원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기 위한 쇼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송기현 민주당·김도읍 한국당 간사가 이날 오전 11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도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이 없다고 내다봤다.

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간사가 동양대 관련해서 증인으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랑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꺼내들었다"며 "간사 간 합의했어도 전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까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뉴스1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고통함 긍지 병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로 더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부담금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0분위	240,833원
1분위	125,531원
2분위	79,147원
3분위	48,103원
4분위	26,697원
5.3배	1.77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호남신문 광역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한 잔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